

도로 위 폭력범죄 '보복운전' 기승

광주·전남 2년새 445건, 전국적으로 8천835건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공분...엄벌 요구 봇물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차폭(차량폭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난폭운전을 한 30대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폭행한 영상이 유튜브와 인터넷 등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 시 초원을 우회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갈치기' 운전을 하다가, 항의하는 B씨에게 500m짜리 페트병을 던지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또 당시 끔찍한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근 풀스로 던져버리기도 했다.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A씨는 B씨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서슴치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후 카니발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영상이 온라인상으로 확산되자 A씨에 대한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과 제주지방경찰청 게시판에선 엄벌을 해달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 위 분노'로 불리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2년 간 발생한 보복운전이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

화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보복운전이 전국에서 모두 8천835건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천 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유형에는 경적을 울리거나 짐을 뺐는 행위 등 다양한 보복행위가 포함됐다.

이러 2천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천95건(12.4%)이 발생한 '시행 등 진로방해' 행위가었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천50건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보복운전 건수는 2017년 95건, 2018년 121건으로 2년 간 216건, 전남은 2017년 120건, 2018년 129건 등 합쳐서 모두 229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 끼어들기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운전자의 어깨를 밀친 혐의(폭행)로 2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고, 2월에는 경적소리에 격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리고 윈드스크린을 부순 50대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2017년에는 시내버스가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노선 시내버스를 650m 가량 앞서가며 서행과 급제동을 10여 차례 반복하고 지그재그 갈지자로 보복운전한 50대 마을버스 운전자가 입건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해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진수기자 /최환준기자

고흥 농공단지 보조금 76억원 부당지원 공무원·업체 관계자 등 15명 검찰 송치

경찰이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공무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흥경찰서는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이 추진하면서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리고, 사업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원을 지원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공무원 12명과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15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흥군은 2015년부터 동강면 장덕리 29만7천㎡ 부지에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나섰다. 국고 보조금과 민간 투

자금 등 3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초 민간투자자 안 돼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고흥군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54억원,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 22억원 등 모두 76억원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를 벌여 박병중 전 군수 등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 전 군수는 뚜렷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고흥군은 부당하게 지원한 보조금 환수를 위해 사업 시행사의 땅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고흥=신용원기자

이별 통보한 여친 감금·폭행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열흘간 자신의 집과 인근 숙박업소 등지에서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감금 등)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와 인근 숙박업소 등지에서 여자친구 A(19·여)씨를 못나가게 가둬놓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김씨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까스로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는 한편,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환준기자



터널안 추돌 사고 주말인 지난 17일 여수시 울촌면 취적터널에서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여수소방서 제공

광주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급증

전년 대비 31.5% 늘어...경찰, 소액사건도 엄정수사

광주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관내에 접수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건수는 5천434건으로, 지난해 동기 4천131건에 비해 31.5% 급증했다. 전체 사이버 범죄 사건 6천여건 중

86.2%를 차지한다. 인터넷 범죄 대부분이 물품 사기 사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셈이다.

지난 7월에는 33명의 피해자에게 주로 골프백을 팔겠다고 속여 총 588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해마다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물품 소액사기 건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명의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상 소액범죄라도 범인 검거가 중요한 이유다.

각 경찰서 사이버팀에는 사건 비중이 작더라도 소액사기 사건은 경각심을 갖고 처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광주청은 설명했다. 주요 사이버 범죄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하고 각 경찰서

는 소액 사기 사건을 충실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용품이나 여행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달 31일까지를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백'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에 대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사이트' 이용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승지기자

광주천서 50대 추정 남성 시신 발견

광주천에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40분께 광산구 우산동 광주천 인근에서 낚시객의 신고로 5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날 광주천으로 낚시를 나선 A(34)

씨는 강 중앙에 떠있는 시체를 발견하고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물 위에 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시체는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과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광산=고흥식기자

만취운전 20대 주차 차량 잇따라 들이받아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4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운전중이던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차된 차량 2대를 먼저 들이

받은 뒤 운행 중인 B(57)씨의 오토바이를 치고 또다시 차량 1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유턴을 시도한 A씨는 반대편에 있던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 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가 도주를 시도하다 추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문철현기자

"잇따르는 보복폭행"

○...최근 제주도 카니발 폭행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보복폭행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 업무방해 혐의로

서구 치평동 한 식당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인 B(50·여)씨를 자전거로 들이받은 후 담뱃불로 광고물을 훼손하는 등 보복폭행을 일삼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복운전 및 폭행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위기"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책임을 떠넘겨 폭력까지 휘두르는 어리석은 행동은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호통. /문철현기자

비타민나무 계약재배

3.3m²(1평)당 4~6萬 소득

1. 비타민나무는 화학비료나 농약살포가 필요 없어 특별한 재배 기술 없이 전국 어느 지역이든 재배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당사는 천연비타민 원료로 제약, 식품, 화장품의 원료로 납품하며 천연비타민 정, 비타민 차, 비타민 음료, 비타민 화장품 등의 다양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수확되고 있는 당사 농장 견학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국내 최초로 비타민나무재배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제품 및 원료를 개발하는 유망중소기업입니다.

선착순! 생산 모목량 한정 식재시기: 10월 말~땅이 얼기 전

강원비타민나무 영농조합은
육묘생산 모목공급 기술지원
계약 재배자 수확한 열매는

영농조합에 납품
연구개발
원료생산
제품생산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145번길 69-14 www.비타민나무.kr 033)241-8282

公認
家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9기)	광주교육대학교(20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 2019. 9.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 2019. 9.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19. 8. 1(목)~9. 7(토)	
수업기간	2019. 9. 6(금)~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